

대한항공 글로벌 톱클래스 '발돋움'

# 아시아나 기업 결합심사 日 승인... 美·EU 막판 활주

주요 14개국 중 11개국 승인  
"日, 필수 신고국 이상 의미 가져"  
항공업계, EU 조건부 승인 관측



대한항공 항공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심사가 일본 경쟁당국의 벽을 넘었다. 이로써 4년 전 14개국가를 대상으로 출발한 대한항공의 기업결합심사는 유럽연합(EU)과 미국만 남게 됐다.

대한항공은 31일 필수 신고국가인 일본 경쟁당국인 공정취인위원회(JFTC)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된 기업결합 승인을 득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일본 경쟁당국에 설명자료를 제출하고 경제분석 및 시장조사를 진행해 같은 해 8월 신고서 초안을 제출했다. 이후 오랜 기간동안 폭 넓은 시정조치를 사전 협

의해온 바 있다.

당시 일본 경쟁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까지 결합할 경우 한-일노선에서 시장점유율이 증가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들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일본

경쟁당국과 면밀한 협의를 거쳐 결합할 항공사들의 운항이 겹쳤던 한-일 여객노선 12개 중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5개 노선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서울 4개노선(서울-오사카·삿포로·나고야·후쿠오카)과 부산 3개노선(부산-오사카·삿포로·후쿠오카)에 국

적 저비용 항공사를 비롯해 진입항공사들이 해당 구간 운항을 위해 요청할 경우 슬롯을 일부 양도하기로 했다.

일본 경쟁당국은 한일 화물노선에 대해서도 경쟁제한 우려를 표명했으나,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분의 매각 결정에 따라 '일본발 한국행 일부 노선에 대한 화물공급 사용계약 체결(BSA, Block Space Agreement)' 외에는 별다른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분의 매각은 남아 있는 모든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고,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에 진행된다.

일본 경쟁당국이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대한항공은 사실상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만 남겨두게 됐다. 앞서 대한항공은 주요 14개국 가운데 EU와 미국, 일본을 제외한 11개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태였다. EU는 오는 14

일 전까지 심사를 잠정적으로 결론 내리겠다고 입장을 내놨으며 사실상 조건부 승인을 내릴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 동북아 허브 공항 지위를 두고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곳"이라며 "이번 일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이 다른 필수 신고국가의 승인보다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항공 인수·통합을 위해 2021년 1월 14일 이후 총 14개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일본을 포함해 12개국은 결합을 승인하거나 심사·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종료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지난해 매출 14.7兆... 사상 최대치 경신

영업이익 1조5869억 달성  
동남아노선 등 수익성 제고

대한항공이 여객 수요 회복과 하이클래스 탑승률 증가로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31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별도기준 지난해 실적으로 매출 14조5751억원, 영업이익 1조5869억원을 달성

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8.7%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45.0%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은 매출 3조9801억원, 영업이익 1836억원을 올렸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3%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64.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매출과 4분기 매출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감소세를 보였지만 글로벌 공급망 문제 및 여객기 벨리 공급 감소 여파로 2022년 2조8836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에 대한 기저효과도 볼 수 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감소에 대해서는 2023년 연간 성과목표 및 안전 목표 달성에 따른 인건비가 4분기에 일시적으로 반영된 영향이라고 대한

항공은 설명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여객 부문은 2019년 대비 공급이 80%대 회복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여객 수요 회복 및 하이클래스 탑승률 증가에 따라 2019년 대비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 부문은 여객기 화물칸(Belly) 및 해운 정상화 등에 따라 코로나19 기간 수준의 반사 이익은 없었지만 2019년보다 더 높은 수익성을 꾸준히 이어 오고 있다고 대한항공은 밝혔다.

올해 1분기 여객은 항공수요와 공

급이 정상화될 수 있는 만큼 건조한 장거리 수요를 바탕으로 동남아 관광노선 및 일본 지선공급 확대 등을 추진하며 수익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올해 1분기 화물은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으로 전통적인 항공화물(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수요 반등 시기가 불확실하지만 전자상거래 수요 강세 유지 및 국제정세 위기에 따른 공급망 불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 K-배터리, '수요둔화·저가공세' 이중고... '질적성장' 반전 모색

올해 배터리 팩 평균가 하락 전망  
원통형 등 고객 맞춤형 제품 확대

국내 배터리 업계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 둔화와 중국 배터리 업체의 저가공세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배터리 팩 평균 가격은 kWh(킬로와트시)당 133달러로 전망된다. 지난해 배터리 팩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14% 하락한 139달러로 추산됐다. 전기차 수요는 둔화하는데, 중국발 배터리의 공급 과잉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중국업체의 반값 전략이 지속가능성이 있을지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분석한다. 중국기업의 경우 보조금과 국가 정책이 뒷받침 돼 가격적인 가격을 제시할 수 있었으나, 중국 내부 업체들끼리도 '치킨게임'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내부에서도 가격 경쟁 고도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라며 "중국 자체에서 시장 재편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배터리 업계는

질적 성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LG에너지솔루션은 니켈 함량 90% 이상의 하이니켈 NCM(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 제품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원재료 공급망 확보와 소재 전환 등을 통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며 2027년 리튬황 배터리 양산을 목표로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삼성SDI는 양극재 생산시설 확장에 상당한 투자를 단행한다. 회사는 울산시와 산업단지개발 및 배터리 관련 생산공장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약 1조원을 투자해 울산에 양극재와 배터리 관련 생산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극재의 안정적 조달을 확보하고 원가 경쟁력을 상승할 전략이다. 양극재의 배터리 제조원가 비중이 높은 만큼 내재화율이 높을수록 원가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SK온은 원통형 배터리 개발에 매진 중이다. 앞서 최재원 SK온 수석부회장은 세계 최대 정보기술(IT)·소비자 가전 전시회인 'CES 2024'에서 "원통형 배터리 개발이 꽤 많이 됐다"며 "양산 시점은 고객들이 원하는 시기에 맞출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 회사는 원통형

배터리 개발을 완료해 3가지 배터리 폼 팩터(파우치형·각형·원통형)를 통해 고객의 다양한 요구 사양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격 경쟁력도 중요하나 스마트 팩토리 및 제조 경쟁력을 높여가며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경쟁력 중 하나"라며 "중국업체가 가격 인하를 한다고 국내 업계도 그만큼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전기차 수요 둔화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6일 컨퍼런스 콜을 통해 "올해 전기차 시장이 약 20% 중반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 전망했다. 매년 30%가 넘었던 시장 성장세가 과도기에 들어가면서 일시적으로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객사인 완성차업체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데도 집중한다. 앞서 배터리 3사는 올해 신년사를 통해 '고객사 신뢰 확보'를 공통 키워드로 꼽은 바 있다. 고객과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부응하는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 LIG넥스원, 장사정포요격체계 설비 고도화

전용 조립·점검장 완공

LIG넥스원이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국가·군사 중요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 중인 장사정포요격체계의 '전용 조립·점검장'을 완공했다. 이를 통해 장사정포요격체계의 성공적 개발과 함께 '유도 무기 체계종합' 분야의 선도적 입지를 굳건히 한다는 계획이다.

LIG넥스원은 30일 구미하우스에서 신익현 사장을 비롯해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및 군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장사정포요격체계 전용 조립·점검장 신축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준공 행사는 장사정포요격체계 개발의 주관 기관과 시제업체가 함께 전용 설비의 완공을 기념하고, 개발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하는 의미로 마련됐다.

총 70억원을 투자해 완공된 '장사정포요격체계 전용 조립·점검장'은 유도 무기 체계조립, 점검장,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 시스템 등 최적화된 장비 및 설비를 갖췄다.

/양성운 기자



## 두산밥캣, 수소 지게차 1호기 출하

두산밥캣이 국내 최초로 수소 지게차 상용화에 나선다.

두산밥캣은 30일 인천 지게차 공장에서 '수소 지게차 1호기(사진) 출하식'을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행사에는 박형원 두산밥캣코리아 사장과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두산밥캣의 수소 지게차 1호기는 20kW 출력의 연료전지를 탑재한 3톤급 모델로, 건설기계연구원에서 테스트를 거친 뒤 고려아연 온산 제련소로 납품된다. /양성운 기자

